

코로나에 상가시장 찬바람...광주 임대료 '뚝'

2분기 광주 중대형상가 0.52%·집합상가 0.5% ↓

코로나 불황에도 창업 계속...상가 공실률은 줄어

중대형상가·오피스 공실률 각각 0.6%P·0.5%P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주요 상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임대료가 광주·전남지역 임대료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기악화에도 오히려 창업사례는 늘면서 상가 공실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중대형상가(일반 3층 이상 및 연면적 330㎡ 초과)의 ㎡당 임대료는 2만900원으로 전 분기대비 0.52% 하락했다.

소규모상가(일반 2층 이하 및 연면적 330㎡ 이하)는 1만6200원으로 전년대비 0.06% 하락했으며, 일반 6층 이상 오피스도 임대료가 5600원으로 전 분기대비 0.08% 떨어졌다.

점포마다 소유권이 따로 있는 집합상가의 경우 임대료가 2만1400원으로 0.50% 하락하면서 인천(-0.51%)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특히 집합상가의 경우 광주 주요 상권인 상무지

구와 금남로·충장로, 첨단1지구 상권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임차수요 감소세를 보이며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남지역 역시 대부분 상가 임대료가 떨어지는 분위기다. 우선 전남 중대형상가의 ㎡당 임대료는 1만1700원으로 0.09% 하락했고, 소규모상가도 1만원으로 0.14% 떨어졌다. 집합상가 또한 1만5500원으로 0.16% 하락했으며, 오피스는 4800원으로 전 분기대비 0.13% 하락했다.

임대료 하락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상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임대료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공실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3.4%로 전 분

기대비 0.6%포인트 줄었고, 소규모상가도 5.6%로 0.04%포인트 감소했다. 오피스는 17.5%로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중대형상가가 10.5%로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6.3%로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는 23.8%로 0.1%포인트 줄었다.

상가공실률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제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00대 생활업종' 등록업체는 지난 5월 기준 7만607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892곳으로 5.81%(4180곳) 늘었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8만6527곳에서 올해 9만1893곳으로 6.20%(5366곳)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비트코인 국내가격 4546만원
이더리움 6.81% ↑ 312만원

5일 오후 국내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상승해 4500만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분 현재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24% 오른 4546만2000원이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 시간 개당 4547만2000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가격이 급등했다.

오후 3시 1분 현재 빗썸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6.81% 오른 312만2000원이다. 업비트에서는 개당 312만3000원이다.

/연합뉴스



'함께 걷는 꽃길예금' 가입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맨 오른쪽)이 5일 무안 청계농협에서 '창립 60주년 함께 걷는 꽃길예금' 가입행사를 열었다.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이 상품은 연 2%대 금리를 적용하며 60일 동안 한정 판매한다.

<전남농협 제공>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 본격 분양

광주 첫 효성 프리미엄 아파트
환승역세권·숲세권·인프라 강점

진흥기업㈜과 효성중공업㈜은 6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은 광주시 서구 마북동 120-1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7개 동, 총 3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4가구 ▲84㎡B 30가구 ▲84㎡C 30가구 ▲84㎡D 45가구 ▲119㎡A 149가구 ▲119㎡A 75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해링턴 플레이스' 브랜드 아파트로, 판상형 4Bav 중심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특화설계(유상옵션)를 더해 넉넉한 수납 공간은 물론, 채광면적을 크게 넓혔다.

입주민을 고려한 섬세한 설계도 적용된다. 전용면적 119㎡ A타입은 가족 구성원과 생활 스타일을 고려해 침실을 대형 현관 창고와 알파룸(유상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방과 연결된 발코니는 세탁실 가

구와 1구 전기쿡탑(유상옵션)을 설치해 보조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도입했다. 지상에는 수변공간을 갖춘 중앙정원과 산책로, 운동공간 등을 배치한다. 피트니스와 실내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독서실, 맘스카페를 비롯해 펫위건존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무엇보다 인근 상무역과 운전저수지, 5·18자유공원을 비롯해 초·중·고교가 도로변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영화관, 광주시청 등 편의·행정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의성이 뛰어나다.

청약일정은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해당지역, 19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다.

특히 서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합리적인 분양가도 예상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물량에서는 7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당첨의 기회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견본주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금호익스프레스 노사, 임금교섭 타결·상생 공동선언

경영위기 공감 임금 동결

정년 1년 연장도 합의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5일 올해 임금교섭 타결과 함께 노사상생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이날 열린 6차 본교섭에서 임금동결 및 정년 1년 연장안에 합의했다. 금호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금호고속의 고속버스운송 사업부문이 몰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다.

노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공감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노사 양측은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자구노력에 적

극 동참할 것과, 상생협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대의 신뢰도 회복과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계영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버스업계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임금교섭 타결과 노사상생 공동선언이 위기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투자가치 100% 확신! 강력추천!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부근)

- 대 지 : 2,700 m²
- 건 물 : 3,704 m²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매도가격 협의

감정가 5,920,417,660원

상담 010-3733-3933